

#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스리랑카

## I. 일반개황

면적	65천 Km <sup>2</sup>	GDP	270억 달러(2006년)
인구	19.20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1,404달러(200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율(달러당)	103.91 (2006년)

- 인도 남동부 인도양상에 위치한 도서국임.
- 내수 시장과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빈곤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GDP의 56%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타이거 반군(LTTE)간의 오랜 내전을 겪었으며 현재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f</sup>
경제성장률	6.0	5.4	6.0	7.4	6.0
재정수지 / GDP	-7.0	-7.6	-7.2	-7.2	-7.2
소비자물가상승률	6.3	7.6	11.6	13.7	15.5

자료 : IFS, EIU

#### □ 경제성장률

- 스리랑카는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6년 스리랑카는 7.4%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서비스부문이 성장세를 주도했고 농림수산업, 건설업 등의 산업도 호조를 보였음. 농업부문은 2004년 쓰나미 영향으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났고 있으며, 건설업은 쓰나미 재건활동 및 신규 주택건설이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음. 특히 서비스부문은 통신, 항만, 무역, 도소매, 금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7년 경제는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6%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스리랑카 내부 안보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GDP

- GDP대비 재정수지는 2006년 중 7.2%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누적 재정적자가 GDP의 100%를 상회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 2007년에도 조세수입 증대조치, 조세행정 개선, 정부부채 관리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문의 지출확대 등으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04년까지는 물가지수 구성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 2005년부터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급격한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2006년에는 고유가, 전기료 및 버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13.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7년에도 기본적으로 고성장 정책이 유지되고 물가상승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15.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농업부문의 성장 지속, 식료품수입 관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현재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반군과의 교전재개에 따른 전쟁 발발 가능성이 향후 스리랑카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 높은 대외 의존도

- 국토 및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특히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의 주요 관건임.

#### □ 열악한 인프라

- 스리랑카의 투자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서, 특히 전력문제가 심각한 장애요인임. 전력요금이 비싸고 잦은 정전 등으로 인해 도시기업의 약 75%는 자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전력공급의 7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해 기업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주요 애로사항임.

#### □ 관광산업의 성장성

- 스리랑카는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섬 중앙부에 고원지대가 자리 잡고 있어 고원 휴양지가 발달해 있으며 고대 유적지도 많은 편이어서 종합관광지로의 개발이 가능함.
- 최근 쓰나미 및 내전의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관광상품 개발, 호텔 건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 통신 부문의 빠른 성장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으로 인해 급속한 성장세 보이고 있음. 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6년 7.4%로 증가하였고, 핸드폰 보급은 연간 50%대의 성장을 하여 핸드폰 사용인구는 2001년 66만 명에서 2006년 54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2006년에는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투자액을 대폭 증대하였으며, 인도의 거대 통신 기업인 Bharti Airtel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등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스리랑카가 남아시아 7개국 대비 이동전화 보급률과 발전속도가 빠른 이유는 문맹률이 10%를 넘지 않고, 영어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2000년에는 인도와 그리고 2005년에는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음. 한편, SAARC(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 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등은 2006년 1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서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교역국간의 경제 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음.
- 2007년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스리랑카는 84위를 기록했고 이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 1위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도 앞선 순위임. 이러한 높은 경제자유도와 지역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가 합쳐진다면 투자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sup>e</sup>	2007 <sup>f</sup>
경 상 수 지	-106	-677	-740	-1,000	-1,100
경 상 수 지 / G D P	-0.6	-3.4	-3.1	-3.9	-3.7
상 품 수 지	-872	-1,443	-1,630	-2,200	-2,400
수 출	5,133	5,757	6,347	7,200	8,200
수 입	6,005	7,200	7,977	9,400	10,600
외 환 보 유 액	2,193	2,058	2,581	2,837	..
총 외 채 잔 액	10,238	11,100	11,400	12,200	13,3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56.1	55.4	48.4	45.3	43.0
D . S . R .	9.1	10.4	5.6	8.7	7.4

자료 : IFS, EIU

## □ 상품수지

- 스리랑카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6년에도 고유

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대금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22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도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 수출은 섬유 및 의류, 차, 고무관련 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체 상품수출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 수출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은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인프라 투자 및 군수물자 관련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 경상수지

- 2006년 중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4년 말 쓰나미 피해에 따른 주요 채권국들의 원리금상환 1년 유예조치 종료,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원조자금 유입 감소, 상품수지 적자확대 등에 기인한 것임.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이전수지만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송금 증가 등으로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06년 20억 달러로 흑자가 확대되었음.

#### □ 외채상환능력

- D.S.R은 2006년에 2005년보다 3.1%p 높은 8.7%를 기록함. 이는 원리금상환 1년 유예조치가 종결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총외채/GDP가 2005년 48.4%에서 2006년에는 45.3%로 하락하였고 2007년에도 소폭 하락한 4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D.S.R도 10%이하에 불과하여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정부와 LTTE간의 갈등 지속

- 2006년의 스리랑카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였음. 지난 2006년 2월 말 정부와 LTTE(타밀 타이거 반군)간 공식 협상이 2003년 4월 이후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평화협상 재개 자체가 양측간 폭력 보복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그러나 평화협상 결렬 이후, 정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LTTE의 자살 폭탄공격으로 고위 장성의 암살과 군 초소 및 해군함정에 대한 기습 공격이 발생하였고, 이에 맞선 정부군의 보복공격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LTTE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스리랑카 내전 : 1972년 이후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싱할리족(전체 인구의 약 75%를 차지)과 타밀족(17%)과의 인종 분류가 1983년 타밀 지역에서 강경파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TTE)'가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격화되었음. 스리랑카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LTTE와 스리랑카 정부군 간의 내전은 아시아에서 진행된 가장 오래된 내전으로 기록되었으며, 2002년 노르웨이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서명되기까지 20여년간 약 6만 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음.

## □ 인도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

- 스리랑카와 인도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타밀문제, 해양경계확정 등의 문제로 한때 불편한 관계를 지속한 바 있음.
- 1987년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1990년 인도 평화유지군 철수, 1998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점차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현재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2006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수출의 9%, 수입의 18.5%가 인도와의 교역에서 발생하였음.

## □ 서방국가의 원조 축소 움직임

-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유치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및 EU 국가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특히 서방거주 타밀계들의 타밀반군 지원 차단을 위해 미국 등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이 필



요한 상황임.

- 그러나 서방국가들은 최근 인권 침해 등 타밀반군과의 치열한 내전과 관련된 이유로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난 2007년 6월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회의를 갖고 원조 중단 및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적 절차 재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국지적인 교전 지속

- 2006년 한해 동안 정부와 반군의 교전으로 1,400여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고, 1,800여명의 LTTE 반군이 사망하였음.
- 지난 2006년 8월 스리랑카 동부지방의 Trincomalee 댐의 수문을 LTTE가 폐쇄하면서 1,000여 가구의 싱할리족 주민들의 식수가 끊어지자, 정부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 Kilinochochi와 Mulaitivu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였음. 또한 2007년 4월에는 LTTE반군이 콜롬보 인근의 석유저장소에 폭격을 가해 큰 혼란을 빚었고, 계속되는 폭탄테러로 민간인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와 LTTE 모두 인도주의적 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국지적인 교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스리랑카 정부, 타밀족 강제퇴거 조치

- 2007년 6월 스리랑카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도 콜롬보에 거주하는 타밀족 376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음. 경찰은 타밀반군의 수도 침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해 스리랑카 법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S&P : B+(05/12)
- FITCH : BB-(05/12)
- OECD : 5등급(06/4) => 5등급(07/3)
- I.I. : 92/173(06/9) => 100/174(07/3)
- Euromoney : 92/185(06/9) => 98/185(07/3)

### 2. 주요 ECA의 인수 태도

- US 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총외채/GDP 비율이 2005년 48.4%에서 2006년에는 45.3%로 하락하였음.  
외채의 대부분이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DSR도 10%이하에 불과하여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해외직접투자현황 : 2007년 6월 현재 136건, 163,273천 달러

수출입현황

- 2006년 수출 193,245천 달러, 수입 38,711천 달러
- 2007년 1~7월 수출 100,110천 달러, 수입 27,308천 달러

- 고용협력분야에서 2004년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음.

## VI. 종합 의견

- 섬유수출 호조와 서비스부문의 강한 성장세로 2006년 7.4%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2007년에도 6%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스리랑카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높은 대외 의존도, 열악한 인프라 등 구조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빠른 성장, 높은 경제자유도, 시장 개방과 경제통합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지적인 교전이 계속되는 등 정부와 LTTE간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스리랑카 내부의 불안한 안보상황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내전의 평화적 해결 여부가 향후 스리랑카의 정치안정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해외경제연구소 아시아 팀장 손승호  
(☎3779-6672) aojai@hanmail.net